

대형 상조업체도 부실... 소비자 두번 올린다

지난해 24곳 중 흑자업체 단 1곳 뿐 방만경영 따른 서비스 피해도 급증

부실한 중소형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업체들의 실적도 부진해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형 상조회사 다수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고 지난해 영업적자를 냈다.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거나 '기업존속 불확실' 진단을 받은 곳도 여럿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8일 재벌닷컴과 한국소비자원, 금융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자산 100

억원이 넘는 24개 대형 상조업체 중 지난해 영업이익을 낸 곳은 1개사에 불과했다.

자산 순위 20위권 밖의 효심상조가 지난해 영업이익 2억원으로 유일하게 영업흑자였지만 전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하는 등 실적이 악화됐다.

적자 누적과 부채 급증으로 재무구조상 문제점이 드러난 업체들도 다수였다.

우리상조개발은 적자 누적에 따른

자본잠식으로 2년 연속 회계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견거절'을 받았다.

일부 대형 상조회사는 부채가 자산의 두 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상조는 자산이 376억원인데 부채는 919억원으로 치솟았다.

삼성복지상조와 디에이치상조도 부채가 자산의 두 배 이상이어서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상조업체들은 모집수당과 관리비 등 초기 비용지출이 많은 특성상 자본잠식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업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면 재무 상태가 악화돼 부도가 능성이 커진다.

출혈 경쟁 등으로 매출보다 영업적자가 더 많은 곳도 있었다.

국민상조는 매출이 53억원이었지만 영업적자는 84억원이었다. 삼성복지상조는 매출은 4억7000만원인데 비해 영업적자는 7배가 넘는 37억원에 달했다.

그 외 동아상조, 금강상조, 모던종합상조, 디에이치상조, 고려상조 등도 매출보다 영업적자가 더 많았다.

일부 업체들의 과당 경쟁과 방만 경영으로 인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회사 관련 피해 건수는 2010년 604건, 2011년 618건, 2012년 71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에는 7일까지

387건에 달해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소비자연맹에도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 만에 상조서비스 피해자 구제 신청이 120여건 접수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고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책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부실한 상조업체들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부도나 폐업 등으로 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대처하기가 마땅치 않다"며 "전반적으로 상조서비스에 대한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은행 부실대출 2조원 증가

기업 침체·가계대출 연체 여파... 신용경색 우려

올들어 은행권 부실대출이 2조원이 새로 쌓였다. STX를 비롯한 대기업의 잇따른 부실과 가계대출 연체에 시비맞은 결과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국민·신한·하나·외환·기업 등 6개 시중은행의 부실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현재 13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은행의 대출규모는 전체 은행권의 75~80%를 차지한다. 은행권 전체로는 약 2조원의 대출이 부실해진 셈이다.

부실 대출은 회수 가능성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는 '고정',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회수의문', 회수불능 확정된 '추정손실' 등 3단계로 분류된다.

고정으로 분류된 대출은 8조원으로 9000억원(11.7%) 늘었다. 회수의문 대출은 2조3000억원에서 2조4000

억원으로 1000억원(6.4%) 증가했다.

건정성 분류 단계의 가장 밑에 있는 추정손실, 즉 전혀 회수할 기망이 없는 대출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2조1000억원에서 지난 3월 말 2조7000억원으로 3개월 새 6000억원(25.1%) 급증했다.

부실 대출에 대해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기업대출의 경우 고정은 대출금의 20%, 회수의문은 50%, 추정손실은 100%가 최저 적립 비율이다.

앞으로도 부실 대출이 쌓여 은행들이 하나 둘 손실을 내기 시작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하락하고 대출 가능 재원이 줄어드는 '신용경색'의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장롱카드' 2343만장

당국 편법 영업 실태점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면 카드(일명 장롱 카드)가 줄지 않자 금융 당국이 편법 영업 실태 점검에 나섰다.

휴면 카드가 해지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면서 오히려 다른 카드에 가입하도록 하는 상술이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휴면 카드는 2천343만장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말 2382만장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1명당 평균 1장의 휴면 카드를 가진 셈이다. 국내 경제활동인구는 2500만명이다.

금감원은 카드 개인회원 약관을 고쳐 지난 3월부터 고객이 휴면 카드 해지 요청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1개월간 사용을 정지하고 3개월 후에 자동 해지하도록 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는 셈이다.

전업계 카드사 가운데 KB국민카드의 휴면 카드 비중이 지난 1월 말보다 4월 말에 가장 많이 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휴면카드 해지 고지 규정이 새로운 신규 회원 가입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카드사들은 휴면카드 해지를 전화로 알리면서 연회비 면제나 부가 혜택, 사은품 제공 등을 내세워 신규 카드 가입을 강요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처럼 휴면 카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실태 조사와 더불어 카드사들이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남신보 해남점 개소...1만여 사업체 불편 해소

전남신보보증재단은 8일 박철환 해남군수, 박희재 군의회의장을 비롯해 명현관 전라남도의회 의원, 이의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등 유관기관 임직원과 지역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지점 개점식을 가졌다.

해남을 중앙으로 위치한 해남지점은 해남, 완도, 진도군 소재 1만 1,000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목포와 강진까지 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완도와 진도지역의 접근성도 개선돼 고객의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보증 확대도 기대된다.

전남신보는 지난 2010년 이계연 이사장 취임 이후 지역별·업종별·신용등급별 균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영업점들 3개에

서 7개로 확대하고 지역의 기간산업인 농수축산업과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의 지원 비중을 크게 늘렸다.

한편 전남신보는 올해 보증목표를 작년보다 40% 증가한 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시켰으며, 1월부터 4월까지 1,088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최재호기자 lion@/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코스닥 시가총액 급증

광주·전남 4581억원...작년말보다 21% 늘어

광주·전남 지역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의 5월 현재 시가총액이 작년말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전남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1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연말 이후 지난 3월까지 시가총액을 분석한 결과 시가총액은 4581억원으로 전년 말(3772억원)보다 21.44% 증가했다.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6%로 전년 말(0.32%)보다 소폭 상승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시가총액 증가를 상위사는 파루(172.06%), 서산(112.23%), 대신정보통신(57.28%), 제이웨이(33.68%) 등의 순이고, 시가총액 상위사는 KPX생명과학(759억원), 남화토건(628억원), 서암기계(466억원), 와이엔텍(41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가상승률 부문에서 파루(172.06%), 서산(112.23%), 대신정보통신(57.28%), KPX생명과학(24.94%), 제이웨이(20.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농협 '중소 보증료 대출' 출시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부행장보 이근)는 7일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보증서 전용 담보 대출 상품인 '중소기업 보증료 지원 대출'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보증료의 0.5%만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협은행이 부담해 중소기업의 금융비

용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월부터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도 이에 해당된다.

특히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외에도 중소기업 특별우대, 일자리 창출기업우대, 농식품기업 특별우대 등 우대금리 항목을 추가로 제공해 신규 대출 시 최고 1.6%p의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

시중 통화량 안정세 전년보다 5% 늘어

시중 통화량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13년 3월 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의통화(M2)는

1862조1000억원(원계열·평균잔액)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5.0% 늘어난 것이다. 증가율은 2월(5.3%)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4월에는 M2 증가율이 정부

의 재정 조기집행과 경상수지 호조 등에 힘입어 5%대 초반으로 다시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계절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계열로 보면 3월 M2 증가율은 전월보다 0.5% 늘었다. 전월 대비 M2 증가율은 1월 0.5%, 2월 0.7% 등으로, 매월 0.5~0.7%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왔다.

/연합뉴스

전남농협 '주유소 조합장 협의회'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중수)는 7일 영암 기찬랜드에서 주유소 협의회 농협간 교류를 증진하고 지역협의회 활동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전남농협 주유소 조합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since 1952 회갑의 해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희망나주

엘지화학나주공장

공장장이 상연

남양유업(주)나주공장

공장장이 창원

나주시의회

의원일동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신기평

나주산림조합

조합장강희식